BLIZZARD ENTERTAINMENT
#9
OVERWATCH™
정켄슈타인
MICHAEL CHU
MATT BURNS
GRAY SHUKO

정켄슈타인

구성
MICHAEL CHU

글
MATT BURNS

번역
HARRY PARK

그림
GRAY SHUKO

식자
JIHYE SOPHIA HONG

선임 편집자
CATE GARY

퍼블리싱 수석 편집자
ROBERT SIMPSON

표지
GRAY SHUKO

그래픽 디자이너
JOHN J. HILL

크리에이티브 자문
CHRIS METZEN, ARNOLD TSANG, BILL PETRAS, MICHAEL CHU

세계관 자문
SEAN COPELAND, JUSTIN PARKER, EVELYN FREDERICKSEN

프로듀서
JEFFREY WONG

글로벌 라이센싱 선임 매니저
BYRON PARNELL

블리자드 스토리 및 크리에이티브 개발 디렉터
JAMES WAUGH

SPECIAL THANKS
CHARLOTTE RACIOPPO, YUI KURITA

BLIZZARD ENTERTAINMENT

©2016 BLIZZARD ENTERTAINMENT, INC. 모든 권리는 BLIZZARD ENTERTAINMENT에게 있습니다. 미국 및 다른 국가에서 OVERWATCH는 BLIZZARD ENTERTAINMENT, INC.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HAPPY HALLOWEEN
그리고 **탕**! 늑대 인간은 쓰러졌지. 뇌에 은탄이 박힌 채로.
그때 카우보이는 보고 말았어. 자신의 팔에 새겨진 선명한 **이빨 자국**을.

그의 피도 저주에 물들어 버린 거야.
찰칵

나쁘지 않군, **맥크리**... 애들 동화 수준이지만. **진짜** 무서운 얘기가 듣고 싶나?
들어나 보죠, 어르신.

심장이 약한 자는 지금이라도 자리를 뜨는 게 좋을 걸세.
거 허풍이 좀 심하시네요, **라인하르트**.
불을 어둡게 해주게.

지금부터 내가 들려줄 이야기는 절대 꾸며낸 게 아닌 **실화**라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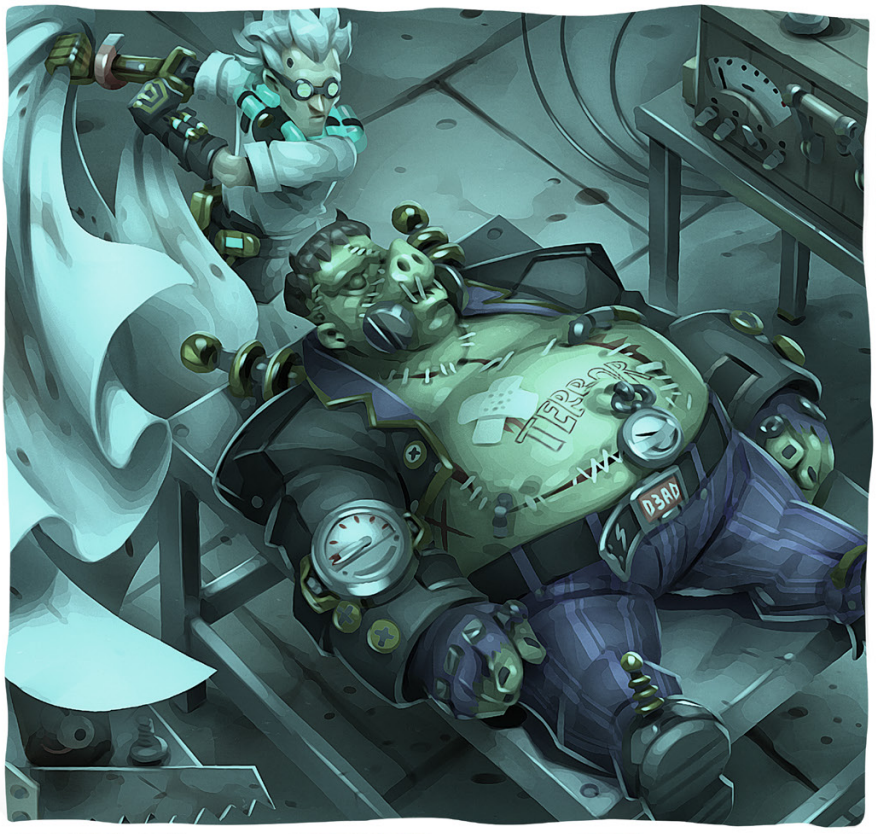
검은 숲의 심장부엔
알더스브륀이라는 마을이 있네.
끔찍한 저주에 걸린 곳이지.
Metzgerei
오래전, 그곳은 **재미슨 정켄슈타인 박사**의
고향이었네.

그는 지역의 성주를
섬기는 뛰어난 과학자였고,
살아 있는 듯한 특이한
로봇을 만들어내곤 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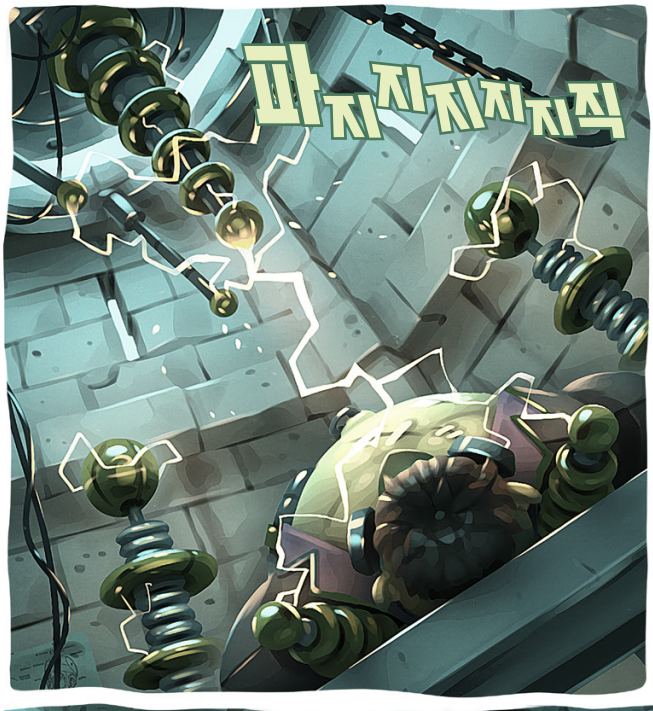
성주는 **엄청난** 미남이었고,
위엄 있고 현명한 데다
공정하기까지 한 지도자였네.
하지만 박사를
좋아하진 않았다네.
그는 정켄슈타인의
'쓸모없는 깡통'을
노예보다도 못하게 대했지.

착한 정켄슈타인 박사는
처참하게 학대받았네.
그래서 영주와 마을 사람들의 신임을
얻으려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존재를 창조해야 한다고 생각했지.

진짜 생명을
창조해야 한다고.



철컹


파지지지지직

하지만 박사가 아무리
노력해도, 무슨 수를 써도...
생명을 불어넣는 방법의
수수께끼를 풀 순 없었네.

결국 포기하기
직전까지 갔던 어느날...

숲의 마녀와 그녀의 무시무시한 하수인이 박사 앞에 나타났네. 마녀는 박사의 작업을 눈여겨보고 있었지.
여기요, 착한 박사님. 제가 당신이 찾던 그것, **생명석**을 드리겠어요.
제가 바라는 보답은 단 하나, 맛있는 음료.
음료?
잠깐.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목이 좀 말랐네.
그걸 마시는 동안 **어떻게든** 이 이야기를 무섭게 만들 방법을 생각해 내시는 게 좋을 것 같군요.
찰칵
애써 강한 척할 필요 없네. 자네 눈은 이미 공포로 가득한걸.
어디까지 했더라...
제가 바라는 보답은 단 하나입니다. 언젠간 제 요청을 들어줄 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그게 무엇이든, 넌 그에 **응하리라**.
박사의 결정은 불 보듯 뻔했지.
파지지지직
쿠쿠쿵

누더기 폐가 첫 숨결을 내쉬고
TERROR
D3AD
썩어가던 다리가 첫 발자국을 내디뎠네.
그리고 괴물은 처음으로 스스로 생각하여 결정했지...

... 그 누구의 노예도 되지 않겠다고.
Gaststätte
박사는 자신의 창조물을 막을 수 없었네. 아니 그러고 싶지 않았어.

그는 자신을 괴롭히던 자들이 목숨을 구걸하는 꼴을 재미있게 지켜보았네.
수 시간 동안이나 학살이 벌어지고 나서야 마침내 괴물은 사라졌지.

그 누구도 놈이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하네.
나도 마을을 직접 방문하기 전까진 이 이야기를 믿지 않았지. 하지만 그 비극 이후 수년이 지난 지금도, 난 그곳에 도사린 어둠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네.

그리고 그곳을 떠날 때, 무언가 내 뒤를 쫓아오는 걸 느낄 수 있었네. 무언가 날 지켜보는 게 느껴졌지... 그건 마치...
똑똑똑
누구야?
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끊는 게!
하느님 맙소사! 괴물이다!
도망쳐!
콰직
찰칵
늦어서 미안하군. 뭐 재밌는 얘기라도 하고 있었나?
의상 멋지군, 레예스.
돈 좀 깨지셨겠네요.
진짜로 우리 유니폼을 만들어줄 생각은 없으세요? 이제 요령 좀 생기셨을 것 같은데.
하하... 그럴까나...
... 어림없는 소리.
끝